

# Awana Leader

갈보리 교회 조상숙 선생님  
어와나 교사? 제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에요~

"여보세요? 갈보리 어와나인데요~ BT교육 받으셨죠? 어와나 교사 하실거죠?"

"네~ BT교육은 받았는데... 교사는 못할 것 같아요. 애를 커비단에 놓으려고 기다리는 동안 봉사할까 했는데.... 집도 멀고 애를 맡길 곳도 없고... 커비단은 개설이 안된다고 해서 교사로 봉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쩌나~~ 교사가 모자라는데... 아이가 몇 살이죠? 그냥 불티단에 있으라고 하고 교사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그...그러죠 뭐"

처음 개설하는 어와나...

교사가 모자라서 애타하는 전화기 너머 그 목소리를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마지 못해 어와나 교사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감당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하라 살림하라 애키우라....' 어와나를 마치고 집에 가면 10시~11시가 훌쩍 넘는데...내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괜히 한다고 했나~' 하는 맘의 부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개인적으로 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숨을 쉴 수조차 없다고 느끼고 있을 때 '나도 나지만 우리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어머니 기도모임이라도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와나를 같이 하는 선생님 한 분께 우리교회에 어머니 기도모임 같은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매주 기도 모임이 있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신 선생님과 권사님께서 온전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기도 모임이 아닌 나의 치유 기도 모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들다고 느끼면서 살던 나는 매주 기도 모임에서 성령님의 치유와 어와나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통해 일주일 을 버텨 낼 새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기도가 하고 싶어요' 제 말 한마디에 어와나 선생님들과 감독관님께서 저를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내가 그 동안 어와나 교사로 봉사를 한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와나를 통해 지켜쓰려하시는 나를 살리시고 새 힘을 주시려고 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 힘든 시기에 내가 어와나 선생님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와나에서 교사한다고 정신없이 일주일 을 살지 않았더라면, 그 힘든 일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텐데...하나님께서 내게 격을 힘든 일을 미리 아시고 기도의 용사를 불어주시고 해맑은 아이들을 통해 새희망을 갖게 하시려고 어와나 교사로 불러주셨구나...'

제가 그 기도 모임 때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도 감독관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제 고집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

힘들게 하는 학생이나 어려운 형편의 선생님이 계신가요? 갈보리 어와나처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모든 걸 변화시키십니다. 그 간 함께 기도 해주셨던,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선생님 닮아서 항상 기도하는 교사가 될게요!!"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 Awana Leader? I wan not eager to do at first !

"Hello, This is Awana in Calvary. Have you taken BT training? Are you supposed to be a leader?"

"Yes. I've got training, but I cannot be a leader. I'm thinking about working during waiting my child to enter Cubbie. However, my house is far from church and there is no place to leave my child..... Cubbie will not be open, so it will be difficult to work as a leader."

"That's too bad. We are short of leaders... How old is your child? You can leave your child in Sparks and serve as a leader. "Ok... Sure..."

First year of Awana....

I couldn't reject the earnest voice over the phone and finally I consented reluctantly to be a leader. However, I found myself unequal to serve.

Working, housekeeping and taking care of child... When I arrive at home, it's always after 10 or 11 pm. "Can I fulfill my leader duty?" I shouldn't have accepted the offer.. Before taking a big load off my mind, something bad happened personally.

When I hardly had time to breathe, a idea flashed on me, "How about attending mother prayer meeting for my child?". One of Awana leaders suggested to participate in prayer meeting every week when I asked her to let me know if we had meeting.

I was grasping at straws when I went to prayer meeting. Suddenly, leaders and a deaconess prayed for me sincerely. It felt like healing meeting instead of mother prayer meeting. The suffering continued day in, day out, but I drew strength to live from meeting in every week with cure of Holy Spirit and bright smile of children.

It turned out that every leader and director had listened my voice, "I want to pray," and organized the meeting for me. After hearing this story, I finally find out that the Lord wanted me to revive and be encouraged by Awana leaders, not just working as 'volunteer'.

If I had not met Awana leader at the tough moments or be busy to work as a leader for every week, I couldn't have overcome many obstacles. The Lord knew difficulties that I should experience in advance, so let me meet prayers and work as a leader in order to lift my heart through bright children.

The love I'd got in the prayer meeting was really great, so I'm obedient to direct's order regardless of my will.

Are there students or leaders in need?

Please pray together like Calvary Awana does. Holy Spirit will change everything.

I'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everyone who prayed with me and pray for me now.

And I'll keep the steam up for children who want to become a leader praying like me.

Awana

영작 : 정유진 기자